

01 교회소식

부활의 영광, 우리의 기쁨과 소망!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던 '2023 부활절 행사'.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영생, 응답과 축복의 길이 된다.

03 간증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랫동안 고통받던 오심견과 무릎 통증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아 영육 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임진 집사 간증.

04 화보

부활절 기념 공연 '부활의 주'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재연을 통해 주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부활의 주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 만민뉴스

제991호 2023년 4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던 '2023 부활절 행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아 4월 9일 주일, 우리 교회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2023 부활절 행사'를 가졌다.

오전 11시 30분, 대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부활'(행 1:11)이라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죽음으로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전하며, "인자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참된 믿음을 이뤄 영생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당부했다.

그 뒤 이수진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성찬식은 우리 교회는 물론 국내외의 지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해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되새겼다.

오후 3시, 부활절 기념 예배는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가 '부활'(요 11:25-26)이라는 말씀을 전했으며, 2부에는 예능위원회 주관 '부활의 주' 공연이 있었다.

부활절 공연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재연한 시대극과 이수진 목사가 인도하는 특별찬양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찬양 때는 현장에 참석한 성도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한 국내외의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므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고난의 한 주간을 그린 영상을 시작으로 '비아돌로사'라는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시대극과 더불어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는 특별찬양 1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에 관한 시대극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찬양하는 특별찬양 2부가 이어져 부활의 영광과 큰 감동을 선사했다(4면 참조).

포토뉴스

**'2023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 개최한 금번 행사는 국내외에서 85개 작품이 출품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달걀을 활용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작품들은 4월 7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대상에 2가나안선교회에서 출품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사진 좌), 해외 대상에는 콜롬비아 쏘가모소 만민교회에서 출품한 <주님의 재림>(사진 우)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4월 16일에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6)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정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되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참으시고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을 알아야 비로소 사랑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고 계실까요?

## 1.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선악 간에 공평하게 상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일컫는 말이지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 곧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만 알고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의만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참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영계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지만, 자신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본 원칙을 간단히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 아

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 행동 하나까지도 포함되므로 어떠한 것이든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고,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를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백보좌 대심판 때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말씀입니다. 즉 얼마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편벽됨이 없이 공평할 뿐 아니라 정확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말과 행동은 물론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없으며 이 땅에서든 아니면 심판 날에 가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2. 공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마다 벌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

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공의에 따른 징계가 두려워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시기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 만큼 반드시 선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요. 공의 가운데 받는 징계나 연단도 결국은 나를 온전케 만들고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임을 깨달아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잠 3:12).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히 12:8).

## 3.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다윗

통일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버리지 못한 죄성이 있어 밋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계와 함께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밋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까지 죽이려 한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성을 버리고 도망 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백성으로부터 경멸적인 저주를 듣지만, 그를 죽일만한 권세와 힘이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부하가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연단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히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었기에 더더욱 분명한 공의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아 있는 죄성까지라도 완전히 뽑아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심으로 깨우침을 주고 막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외면하심으로 그 악을 드러내시고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큰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악한 시므이나 아버지를 반역해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 안에 살고자 하며 설령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에는 양약이 되고 축복으로 임하지만, 반대로 죄 가운데 거하고 끝까지 돌아키지 않는 사람에게에는 엄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전 12:14 ; 갈 6:9). 반드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과 진리대로 행해 나갈 수 있지요.

설령 애매하게 핍박당한다 해도,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해도, 또 당장에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낙망치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 4. 공의를 정오의 빛에 비유하신 이유

정오의 빛은 하루 중에 가장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있다고 해도,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있다고 해도 중천에 떠 있는 태양에서 발하는 정오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밝히 빛나므로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으며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의가 있으므로 하나님 사랑과 보장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셔서 옳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택하시고 40년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한 후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닦은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불순종과 원망, 불평하며 때로는 대적해 오기도 하는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큰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큰 사랑과 온유한 마음, 덕으로 온 백성을 감싸 그들을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할 수 있었으며, 출애굽 2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대 용서치 않으셨지요. 출애굽 한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고리를 비롯해 한 무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땅이 그 입을 열어 삼키는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셨지요. 이때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의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결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공의를 굽게 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고 다시금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아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십견과 무릎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정임진 집사 (71세, 광주만민교회)

저는 오랫동안 오십견과 무릎 통증을 앓아왔는데, 지난 2월 2일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습니다. MRI 촬영 결과, 무릎에 물이 차 있다고 하여 통증 주사 맞고 약을 먹었지만 그때뿐이었지요.

이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에 매일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꿈을 꾸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한 손은 제 머리에 얹고 또 한 손으로는 제 오른손을 잡고는 저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 주시는 꿈을 꾸 뒤 저는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치료의 확신을 얻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3월 23일, 그날도 GCN방송을 통해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 뒤 당회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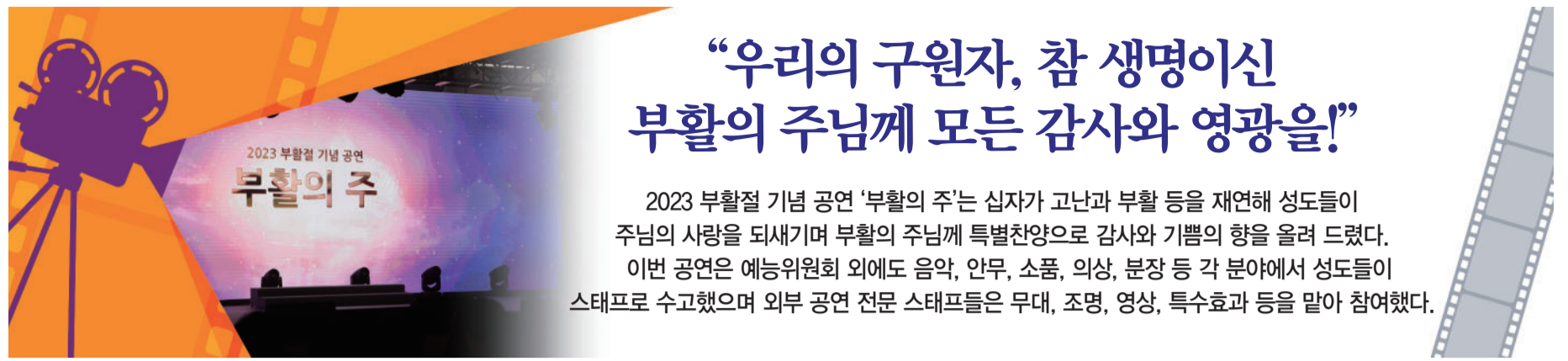
의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무릎 통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저는 그다음 날 있을 은사 집회에서 실시간으로 접속해 간증할 생각에 기쁘고 설렐었습니다.

3월 24일, GCN방송으로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부터 온몸이 뜨겁고 너무 더워서 시간 내내 부채질할 정도였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는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마저 사라져 자유롭게 팔을 올리고 내릴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치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우리의 구원자, 참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2023 부활절 기념 공연 ‘부활의 주’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 등을 재연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부활의 주님께 특별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의 향을 올려 드렸다. 이번 공연은 예능위원회 외에도 음악, 안무, 소품, 의상, 분장 등 각 분야에서 성도들이 스태프로 수고했으며 외부 공연 전문 스태프들은 무대,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을 맡아 참여했다.

## PART 01 주님의 십자가



## PART 02 특별찬양 1부



## PART 03 주님의 부활



## PART 04 특별찬양 2부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li> <li>●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li> <li>●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li> <li>●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li> <li>●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li> <li>●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li> <li>●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li> <li>●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li> <li>●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li> <li>●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li> <li>●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li> <li>●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li> <li>●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li> <li>●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li> <li>●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li> <li>●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li> <li>●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li> <li>●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li> <li>●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길 5 ☎041)577-7077, 010-3447-7077</li> <li>●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li> <li>●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li> <li>●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li> <li>●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li> <li>●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li> <li>●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li> <li>●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li> <li>●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li> <li>●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li> <li>●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li> <li>●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li> <li>●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li> </ul> |
|---|--|--|---|